

베트남 웨이에 동참하자

2002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호치민시를 방문했을 때 받은 여러 가지 인상 중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두 가지 기억이 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기억이 베트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마치 70~80년대 대한민국의 소박한 동네 골목들을 연상시키는 도시 분위기였다. 늦은 밤 호치민의 탄손 공항에 내려서 공항 택시로 호텔까지 가는 길은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그 풍경이 주는 정취가 바다 건너 다른 이국의 나라에 도착한 느낌이 아니라, 늦은 밤 졸다가 깨어 허겁지겁 내린 우리나라의 어느 이름모를 시골 마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편안함이 머나먼 이국 땅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 볼만 하다는 심정적인 위안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하고 돌이켜 생각해보곤 한다.

두 번째는 다음 날 아침 호치민시의 모습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한 오토바이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첫날밤의 푸근하지만 정체된 느낌과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새마을 운동을 하던 당시 우리들의 삶의 열정이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강렬한 첫 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은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음의 열정으로 똥친 나라

베트남은 약 8,600만명에 달하는 인구 중에 3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다. 이 젊은 국가의 청소년들은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의 연예인들에 열광하고 있다. TV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많을 때는 2~3개의 한국 드라마가 동시에 방영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다른 나라와의 결혼보다 성공적이라는 보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트남과 한국 간에 활발한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성주 카렛 사장

베트남은 현재 연평균 7~8%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IT 분야의 성장률은 무려 30%에 달한다. 이미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고, 중소형 인터넷 카페들도 1만여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온라인게임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서비스 될 예정이고,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들도 서비스 예정에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베트남의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교육 개혁에도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교육부와 몇몇 대학들은 좁고 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e러닝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05년 기준 GDP가 600달러를 겨우 상회하는 국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 속도인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그들의 GDP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베트남의 재외국민들이 베트남 내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액이 2005년에 벌써 43억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긴 호흡의 접근 방식 필요

베트남은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닮았지만,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느낌의 미학을 가진 나라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다. 하지만 긴 검토의 기간이 지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되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베트남 방식(Vietnam Way)' 이라고 설명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베트남 방식에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느리기만 한 베트남 방식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느린 비즈니스 과정 속에서 베트남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신실한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은 역동적인 에너지와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을 이해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추월할 지도 모른다고 예측한다. 우리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로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긴 호흡으로 베트남에 다가가기를 부탁하고 싶다. 🍎